

## 2025년 7월 6일 주일 연중 제14주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세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데에 몸 바쳐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과 평화를 드러내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의 용기와 복음의 자유를 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성가 : 16번 '온세상아 주님을 '**

###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수난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 66장 10절-14절**

**화답송 :**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 2 독서 : 갈라티아서 6장 14절-18절**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10장 1절-12절. 17절-20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 성가 : 156번 ‘한 말씀만 하소서’**

#### **영성체 후 묵상**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하시며 일흔두 제자를 파견하십니다. 바오로 사도의 고백을 새기며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63번 ‘온세상에 전파하리’**

## 2025년 7월 13일 주일 연중 제15주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정신을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려 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돕시다.

**입당성가 :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신명기 30장 10절-14절**

**화답송 :**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제 2 독서 : 콜로새서 1장 15절-20절**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10장 25절-37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 성가 : 164번 ‘떡과 술의 형상에’**

**영성체 후 묵상**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곤경에 놓인 이웃을 보고,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린 사제나 레위인인가? 가엾은 마음이 들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인가?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 2025년 7월 20일 주일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며 농민 주일입니다. 지혜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섬깁시다.

**입당성가 : 402번 '세상은 아름다워라'**

### 본기도

†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창세기 18장 1절-10절**

### 화답송

◎ 주님,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 2 독서 : 콜로새서 1장 24절-28절**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10장 38절-42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성체 성가 : 157번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마르타처럼 시종드는 일로 분주하고 많은 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잠시라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 말씀을 들어 봅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번 ‘주 하느님 크시도다’**

**2025년 7월 27일 주일**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신비를 밝혀 주시고 성령을 내려 주시어, 우리가 아버지를 굳게 믿으며 꾸준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입당성가 : 40번 ‘구하시오 받으리라’**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 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창세기 18장 20절-32절**

**화답송**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제 2 독서 : 콜로새서 2장 12절-14절**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11장 1절-13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

**영성체 성가 :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 **영성체 후 묵상**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벋이 줄곧 졸라 대면 마침내 필요한 만큼 다 주는 사람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400번 ‘주님과 나는’**